

韓國에서의

「다윈」主義의 受容

우리나라에서 다윈主義를 받아들인것은 1880년대에 日本人들의 번역서 또는 저서에 의했지만, 1900년대에는 中國인들이 쓴 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는데 특히 嚴復(天演論, 1898)과 梁啓超(飲泳室文庫, 1903)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할수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生物學的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학에 근거를 둔 「種의 起源」은 논의할수 없었고, 物競天擇(適者生存)과 優勝劣敗(生存競爭)를 公式으로 삼아 國民을 각성하려는 思想的 基반으로 삼았던것 같다.

19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윈主義를 소개하는 글도 있기는 하나 이를 사상적 基반으로 삼은 글들이 더욱 많다. 더욱 다윈主義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생물학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번번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散見된다.

梁啓超와 같은 이도 「飲泳室文庫」중 〈治國學的兩條大路〉에서 猿類로부터 인류가 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既存種으로 부터 新種이 起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것 같다.

즉 “...再如達爾文之用生物進化說... 人既自猿進化以來, 爲什麼人自人而猿終爲猿? 恐栢他也不能系我們以很有理」의 鮮答... (다윈의 生物進化論을 가지고... 人類가 猿類로부터 進化的 이래 어찌하여 인류는 인류이고 猿類는 끝내 猿類로 남았는가. 아마도 그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條理當는 解答을 줄수 없을 것이다... 季桂柱記, 三星文化文庫39, 中國古典入門P.36)

또 俞吉潛이 우리나라에서 進化思想을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도 있으나 그의 「西激見聞」13편 〈學術來歷〉에 소개된 生物學者를 보아도 進化에 관심이 없었던것 같고 또 인류발전을 未開(야만) → 半開 → 文明의 방향을 취한다고 한것도 진화사상이라기 보다는 L.H. Morgan의 「Ancient Society」(1897)에서 분류한 야만 → 미개 → 문명의 방향과 비슷하다. 더욱 進化는 直線的인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俞吉潛은 다윈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영향도 받지 않은듯하다.

다윈主義를 그대로 소개한 글 중에는 상당히



朴相允
(成均館大 教授)

깊은 곳까지 탐구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있다. 石洲 李相龍의 「進化輯說」에서는 다윈의 「種의 起源」을 이해하고 있는 듯 하며, 共修學報 2호 (1907. 4. 30)에는 朴有秉이 3회 (27~29)에 걸쳐서 生物學的인 내용으로 「進化論」이란 제목으로 소개한 것이 있다.

『生物은 其體內와 外界에 狀態로써 直接으로는 其體와 間接으로는 其生殖器에 人工을 加하여 原種을 變게하나니』의 내용으로 보아서 후천형질의 유전성을 新種形成의 메카니즘으로 여겼던 것 같다.

특히 優勝劣敗와 物競天擇을 강조하고 있다. 즉 『動物은 如斯한 自然淘汰에 因하여 生存하는 物인 故로 自己에 能力으로 써 能히 外敵을 防하는 者만 現世에 存在하는 地位를 占得하고 其他은 習消滅한境에 歸하나니』라고 했다.

李相龍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達爾文英吉利人種原論曰, 生物變遷之原因, 皆由生存競爭優勝劣敗之公例, 而來勝敗之機, 有由於自然者. 有由於人爲者, 由於自然者, 謂之自然淘汰, 由於人爲者, 謂之人事淘汰, 淘汰不已而種乃日進焉」라고 했다.

이밖에도 다윈主義를 소개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들이 1900-1910년 사이에 많이 발표되었다.

한편 다윈思想은 사회의 여러 방면에 침투하였으며 특히 生存競爭, 自然淘汰, 適者生存이 進化機構로서 굳혀졌고 隔離, 變異機構 기타 進化의 증거가 될수 있는 生命현상이나 地史學的의 논의는 별로 없었으며 이러한 생각만으로 社會進化의 방향으로 곧바로 끌고 갔었던 것 같다. 嚴復의 「天演論」만 하더라도 헉슬리의 「進化와 論理」를 번역한 것이다.

다윈主義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光華學校(1906년 설립)의 頌祝歌에도 「優勝劣敗 固然하니」의 대목이 있고, 西友學會月報 創刊号 (1906. 7. 31)에는 西友學會趣旨書 (光武十年十月)가 실려있는데 그 첫머리에도 『凡物이 獨하면 危하고 羸하면 強하며 습하면 成하고 離하면

敗함은 固然之理라 矧今世界에 生存競爭은 天演이오 優勝劣敗는 公例라 謂하는 故로...』라고 했으며, 同月報 論說「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에서도 朴殷植이 「...曰 生存競爭은 天演之理오 優勝劣敗는 公例之事라하니...」를 비롯하여 文脈이 進化思想에 기반을 둔 듯하다.

『進明彙論』은 일종의 社會史라 할수 있지만 본문 첫머리부터 進化사상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人類何以貴 以其非某新進化也 生物由微生之蟲衍而爲人 其中不知機經天之淘汰物類之淘汰 始改良革新 而爲直背顛方趾之人 此其可貴一也」라고.

한편 大韓每日申報 1905. 12. 1자 論說 「信教自強」에서도 첫머리에 「普天之下 全球地上에 億萬人生이 互相競爭者는 勢力而已라 是以로 國土와 人民이 恒常 弱肉強食과 優勝劣敗를 不免하니...」라고 써어 있다.

이러한 예는 더욱 많다. 進化와 進歩의 觀念을 결부한 글로서 大韓每日申報 1908. 2. 8자 論說 「進化와 降衰」, 同新聞 1909. 8. 1자 論說 「競爭進化論의 大概」등이 있으며, 大韓自強會 月報 5号 (1908. 11. 25)에 실린 張志淵의 논설 「團體然後民族可保」, 太極學報 10호에 실린 朴彥鎔의 「教育이 不明이면 生存을 不得」등의 글에도 進化思想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舊韓末의 進化論은 生存競爭, 自然淘汰, 適者生存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진정한 다윈주의는 理解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의 進化論 受容의 特色은 開化지식인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약간의 動物進化의 論議는 있었으나 植物進化에 대한 것은 찾아볼수 없었으며 生物學的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生物進化의 概念의 수용과 흡수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社會進化로의 영접을 받았지만 進化과정을 連繫的, 直線的인 발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더욱 生物進化에 대한 다윈의 생각은 이를 소화할수 없었다고 할수 있다.